

#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 상 용<sup>†</sup>  
(한국해양대학교)

##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Mentoring Participation for low-income Children : Application of Cooper's Multiple lense

Sang-Yong LEE<sup>†</sup>  
(Korea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mentoring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 for low-income children using Cooper's multiple lense.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is composed of the normative dimension, structural dimension, constructive dimension, technological dimens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difference solution shows the meaningful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category of normative dimension. Second, the budget and support setup shows the meaningful positive relationship in the category of technological dimension. But other factors do not show the meaningful influence.

*Key words : Mentoring, Multiple lens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 I. 서론

최근 들어 더욱 부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이 언론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으며 경제 활동 인구의 소득 차이로 상대적 사회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수입이 적은 빈곤층, 즉 저소득계층의 사회 구성원들은 가정 경제를 위한 생계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자녀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부족은 지적 욕구 불만족 야기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순규, 이재경(2007)은 가정 내 저소득이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 학업성취, 학습태도, 집중력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관심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 경제의 악화로 인한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410-5361, updragon@hhu.ac.kr

가정 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하에서도 저소득층은 교육 소외 계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과 관련기관이 연계한 교육멘토링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 빈약과 대학-관련기관의 연계 미약 그리고 참여 대학생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양민화·이애진·손정원·정혜림, 2011).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멘토링의 한 주체인 대학생들의 참여 활성화와 사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육멘토링 운영과 함께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한 대학 차원의 연구와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과 관련 기관이 연계한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멘토링 사업의 대학생(멘토)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Cooper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밝혀보고,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대학과 관련 기관이 대학생들의 멘토링 참여를 유도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대학생 교육멘토링

교육멘토링제란 대학, 교육지원청 등이 연계하여 대학생(멘토)과 초·중·고학생(멘티)이 정기적으로 만나 기초학습·교과지도, 특기·적성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대학생 멘토링은 2006년 동작·관악구 70개 초·중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으로 계속 확대 운영되고 있으

며 2008년에는 2,065개, 2009년에는 2,380개 학교로 증가해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이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학생 교육멘토링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교육멘토링제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멘토링제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미애(2009), 박종운 외(2007), 방진희(2005), 오수정(2011), 이현주(2008) 등의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의 효과성을 다루었다. 연구 결과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과 같은 내적 영역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고, 학교생활 면에서도 멘토링을 통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멘티-멘토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팀-멘토링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을 연구 결과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멘토링 활동은 멘티 학생들의 직접적인 학습향상이 관찰되었다는 결과보다는 멘토의 정의적인 지지가 간접적으로 멘티의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양민화 외, 2009).

멘토링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는 간진숙(2011)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멘토링 모형으로 학습지도와 진로지도를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혼합형 멘토링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육멘토링제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는 성경주(2009), 양민화 외(2011) 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멘토들에 대한 보상과 사전·사후교육을 통한 전문화와 함께 멘토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인적 자원 지원체계가 보장되고 체계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대학생의 멘토링 참여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성경주(2009)의 연구 일부에서 볼 수 있는데 대학생의 소속단체, 부모의 자원봉사 강조 여부, 과거 멘토링 경험,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이 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연구는 박경민(2008)의 연구에서 볼 수 있으며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박성미(200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 대학생의 멘토링 참여 요인에 대해 일부 한정적 요인에 기초한 분석은 있지만 다차원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 2.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

다양한 이론과 모형을 통해서 교육정책 및 공공정책을 분석해 보는 것이 정책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문제들에는 정책에 대한 담론, 계획, 집행 정책맥락의 역학, 정책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교육정책의 발달을 이끌어온 이론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실증주의 관점인 체제이론, 신다윈주의 옹호연합 이익집단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과 해석학주의 관점인 비판이론,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이데올로기적 측면인데 이 이론들은 모순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정책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손경재, 2009; 정훈, 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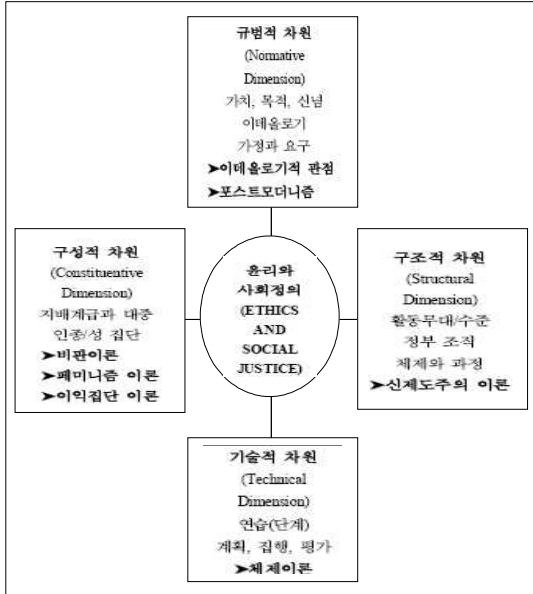
기존의 정책연구들은 특정 영역의 이론으로 분석되어짐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책을 분석하지 못하여 정책 결정 이해와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Cooper 등은 말하고 있다. 한 영역에 국한된 정책분석모형은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내용과 사회현상을 포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종합적인 이해와 확신있는 정책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Cooper 등은 다양한 관점과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 정책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의 4차원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은 가치, 목적, 신념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관점과 포

스트모더니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은 조직과 제도적 구조, 체제,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며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구성적 차원은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 혜택을 받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포함하며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구성 집단들에 의해 형성된다. 비판이론, 페미니즘 이론, 이익집단 이론들이 옹호자와 반대자의 역할 및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은 정책의 연습(단계), 계획, 집행, 평가를 포함하고 체제이론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없으면 정책 분석이 마무리 될 수 없음을 뜻한다. Cooper 등은 4차원의 분석 모형을 통해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정책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음은 Cooper의 학교 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4차원의 분석 틀을 제시한 한 예이다. 차원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규범적 차원으로 학교 개선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신념체제, 가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구조적 차원으로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관계, 학교 조직의 구조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심을 두면서 학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구성적 차원으로 학교 개선과 변화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이익을 얻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는 차원을 말한다. 넷째, 기술적 차원으로 학교 개선을 위한 계획 시행 평가를 체제 이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양성관, 2006, 재인용).

[그림 1]은 Cooper의 4차원 분석 틀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이 국내 교육정책 연구 모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손경재(2009)의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에 미치는 요인 탐색, 고봉선(2011)의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정훈

(2011)의 한국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  
 자료 : Cooper, Fusarelli, & E. V Randall(2004)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분석을 위한 준거 틀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도구로 언급한 Cooper, Fusarelli, & E. V Randall(2004)의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독립변인은 분석 모형에서 보여지듯이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그리고 기술적 차원으로 나누었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종속변인은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의 내용 이해와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대상 교육멘토링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독립변

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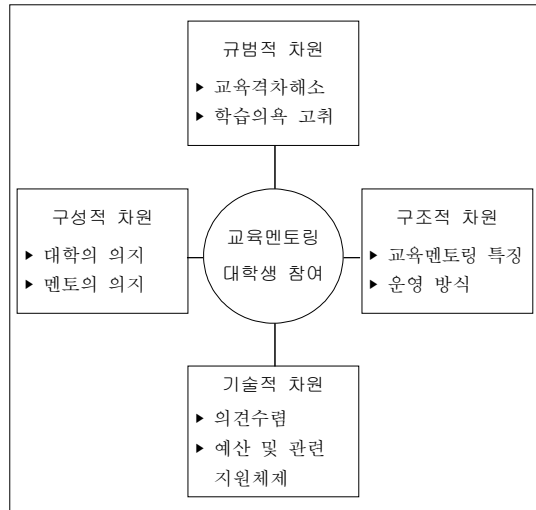
첫째, 규범적 차원은 정책에 대한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한다. 이에 저소득층 교육멘토링의 신념, 가치인 교육격차의 해소, 학습의욕 고취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구조적 차원은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하는 제도적 구조와 정책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이에 교육멘토링의 특징,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멘토링 특징, 운영방식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구성적 차원은 권리를 가진 이익집단, 공급자와 소비자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의 정책은 지지하고 반대하는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 집단은 영향력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보낸다. 이에 교육멘토링의 주요 구성 집단인 대학의 의지, 멘토의 의지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기술적 차원은 지원체제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이에 의견수렴, 예산 및 관련 지원체제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선정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을 다음 [그림 2]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2] 본 연구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 제시

##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 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 대한 각각의 요인들이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각각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에 대한 가설 설정의 내용들이다.

가. 규범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설

① 연구가설(H1) : 규범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교육격차해소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연구가설(H2) : 규범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학습의욕고취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구조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설

① 연구가설(H3) : 구조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교육멘토링의 특징은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연구가설(H4) : 구조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교육멘토링의 운영방식은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구성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설

① 연구가설(H5) : 구성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대학의 의지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연구가설(H6) : 구성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멘토(대학생)의 의지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기술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설

① 연구가설(H7) : 기술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의견수렴은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연구가설(H8) : 기술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예산 및 지원체제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자료와 분석 방법

가. 자료수집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 부산지역 A대학의 2011년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멘토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2012. 3. 14 ~ 3. 29까지 16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181/350(51.7%)로 나타났다.

나.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자료는 spss 18.0와 AMOS 18.0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참여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들의 문항들의 타당성 검증(요인분석)과 함께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신뢰도(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독립변수들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독립변수의 하위 영향요인들이 종속변수인 대학생 교육멘토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영향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자료의 특성

가.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의 통계학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 79명(43.6%), 여 102명(56.4%), 학년은 2학년 49명(27.1%), 3학년 55명(30.4%), 4학년 77명(42.5%), 멘티 학생정보는 중학생 101명(55.8%), 고등학생 80명(44.2%)로 나타났다.

나. 측정도구 및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측정도구는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5)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은 1.0이상,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교육멘토링 대학생 참여는 연구모형에 따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

과 총 24문항 중 8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신뢰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의 변수들에 대한 검사도구 전체 16문항의 신뢰도계수는 .894이고 각 항목은 모두 .682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
규범적 차원	교육격차 해소	2	.821	.804	1.679	41.980	.852
		3	.870	.843			
	학습의욕 고취	4	.873	.854	1.649	41.218	
		5	.837	.826			
		6	.834	.754			
구조적 차원	교육멘토링 특징	7	.840	.736	2.302	46.031	.802
		8	.814	.706			
		9	.929	.877			
	운영방식	10	.666	.669	1.440	28.810	
		11	.865	.838			
구성적 차원	대학의 의지	12	.899	.862	1.691	42.267	.809
		15	.874	.814			
	멘토의 의지	16	.835	.780	1.603	40.079	
		22	.954	.934			
기술적 차원	의견수렴	23	.667	.710	1.184	39.462	.682
	예산 및 지원체제	24	.935	.883			

## 2.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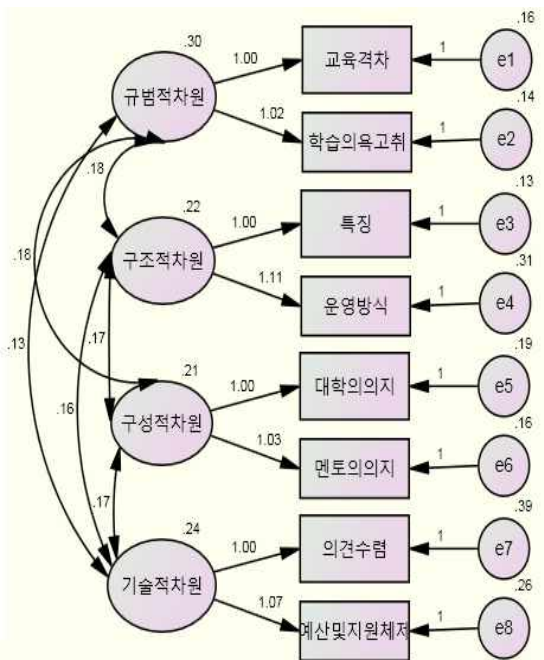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검증된 Cooper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검증이 아닌 모형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독립변수인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 대한 인과계수 및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및 <표 2>와 같다.

먼저 규범적 차원의 두 가지 하위 영향요인에 대한 표준화 인과계수는 교육격차해소가 .810로 나타났으며, 학습의욕고취가 .828로 유의미(P<.001)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SMC(일반적으로 0.4 이상 유효)는 교육격차해소 .655, 학습의욕고취 .685로 나타났다.

구조적 차원의 두 가지 하위 영향요인에 대한 표준화 인과계수는 교육멘토링 특징이 .785, 운영방식이 .682로 교육멘토링 특징의 인과계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SMC는 교육멘토링 특징 .655, 운영방식이 .464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독립변수의 인과계수 및 SMC

구분	인과계수	표준화 인과계수	S.E	C.R	P	SMC
교육격차해소 <-- 규범적 차원	1.000	.810			***	.655
학습의욕고취 <-- 규범적 차원	1.022	.828	.110	9.261	***	.685
교육멘토링특징 <-- 구조적 차원	1.000	.785			***	.617
운영방식 <-- 구조적 차원	1.105	.682	.141	7.847	***	.464
대학의 의지 <-- 구성적 차원	1.000	.720			***	.518
멘토의 의지 <-- 구성적 차원	1.031	.764	.122	8.469	***	.584
의견수렴 <-- 기술적 차원	1.000	.619			***	.383
예산및지원체제 <-- 기술적 차원	1.071	.720	.184	5.820	***	.518



[그림 3] 주요 독립변수의 경로계수

구성적 차원의 두 가지 하위 영향요인에 대한 표준화 인과계수는 대학의 의지가 .720, 멘토의 의지가 .764로 나타났으며 SMC는 대학의 의지가 .518, 멘토의 의지가 .584로 나타났다.

기술적 차원의 두 가지 하위 영향요인에 대한 표준화 인과계수는 의견수렴이 .619, 예산 및 지원체제가 .720로 나타났으며 SMC는 의견수렴이 .383, 예산 및 지원체제가 .518로 나타났다.

그리고 4차원 정책분석의 하위 영향요인은 모

두 유의미한( $P<.001$ ) 결과를 보였다.

### 3.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가설 검증

가. 대학생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

본 연구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주요 변수들이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의 과정은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종속 변수(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독립변수인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변수들의 다중공선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와 VIF를 검증한 결과 3.3이하로 모두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 연구 분석 모형의 해석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 모형에 의한 독립변수들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의 대학생 참여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F값이 19.18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P<.001$ )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결과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나 제

<표 3> 주요 독립변수이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396	.145		2.733	.007		
규범적 차원	교육격차	.652	.068	.685	9.534	.000	.505	1.982
	학습의욕 고취	.088	.070	.093	1.261	.209	.481	2.081
구조적 차원	특징	-.065	.074	-.060	-.881	.379	.561	1.783
	운영방식	.062	.054	.073	1.140	.256	.631	1.585
구성적 차원	대학의의지	-.058	.068	-.057	-.852	.395	.582	1.718
	멘토의의지	-.069	.072	-.066	-.964	.336	.553	1.808
기술적 차원	의견수렴	-.025	.048	-.030	-.509	.612	.730	1.369
	예산 및 지원체제	.136	.054	.155	2.501	.013	.681	1.468

R=.743, R<sup>2</sup>=.551, 수정된 R<sup>2</sup>=.531  
F=26.431, p=.000, Durbin-Watson=2.111

위한 후(p>.05) 가설 검증을 위해 다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가설 검증

1) 규범적 차원에 대한 가설검증

① 연구가설(H1) : 규범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교육격차 해소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685, P=.000으로 나타나 정(+)의 유의미한 (P<.05)결과를 보여 연구가설 H1은 채택되었다.

② 연구가설(H2) : 규범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학습의욕 고취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093, P=.209로 유의미한 (P>.05)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H2은 기각되었다.

2) 구조적 차원에 대한 가설검증

① 연구가설(H3) : 구조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교육멘토링의 특징은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060, P=.379로 나타나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의미한 (P>.05)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H3은 기각되었다.

② 연구가설(H4) : 구조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교육멘토링의 운영방식은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073, P=1.140으로 유의미한 (P>.05)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H4는 기각되었다.

3) 구성적 차원에 대한 가설검증

① 연구가설(H5) : 구성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대학의 의지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057, P=.395로 유의미한 (P>.05)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H5는 기각되었다.

② 연구가설(H6) : 구성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멘토의 의지는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066, P=.336으로 유의미한 (P>.05)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H6은 기각되었다.

4) 기술적 차원에 대한 가설검증

① 연구가설(H7) : 기술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의견수렴은 대학생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030, P=.612로 유의미한 (P>.05)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가설 H7은 기각되었다.

② 연구가설(H8) : 기술적 차원의 하위 요인인



예산 및 지원체제는 대학생 참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 표준화 베타값은 .155,  $P=.013$ 으로 나타나 정(+)<sup>2</sup>의 유의미한 ( $P<.05$ )결과를 보여 연구가설 H8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하위 영향요인별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규범적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와 기술적 차원의 예산 및 지원체제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하였다.

본 연구 분석모형의  $F=26.431$ 로 유의미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4차원 하위 요인들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의 대학생 참여를 위한 설명력은 55.1%였으며, 수정된 설명력은 53.1%로 나타났다.

## V. 종합적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다차원 영향요인 분석을 토대로 대학생(멘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멘토링과 쿠퍼(Cooper)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 연구와 함께 멘토링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학생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 교육멘토링 참여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설계를 하였다. 이에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교육멘토링의 대학생 참여에 교육격차해소가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자녀)들의 교육적 기회 부족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의욕 고취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

은 교육멘토링이 학습의욕고취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부여 등과 같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대학생들이 지지하는 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교육멘토링의 특징 및 운영방식이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멘토링의 특성상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을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점과 주중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멘토링 참여 요인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양한 운영방식의 멘토링(동성멘토링, 일대일 멘토링, 일대다 멘토링)이 대학생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운영 방식에 의한 참여여부 결정보다는 멘토링 자체에 대한 참여여부 결정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대학의 의지와 멘토의 의지가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멘토가 교육멘토링에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은 지원전담부서의 부재와 함께 지원시스템 빈약으로 인해, 학생은 학업 및 대학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대학생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의견수렴과 예산 및 지원 체제가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 중 의견수렴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멘토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교육멘토링 운영에 반영되어 멘토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산 및 지원체제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멘토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봉사시간 등의 지원이 대학생

의 교육멘토링 참여에 정(+)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성경주(2009), 양민화 외(2011)의 연구와 같이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인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성경주(2009)의 연구결과 대학생 멘토링 참여 요인으로 자원봉사 강조 여부, 멘토링 및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격차해소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대학생으로의 공감과 장학금, 봉사점수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의 혜택이 중요 참여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모형에 따른 가설설정 차이로 인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멘토링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질적 만족도 및 관리 차원에서는 소홀한 면이 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멘토링제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 혜택이 저소득층 자녀에 제공될 바라며, 대학생과 같은 교육기부층의 교육 공동체의식 발휘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멘토링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참고 문헌

간진숙(2011). 대학에서의 멘토링 모형 개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미애(2009).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한영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규·이재경(2007). 빈곤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75~98.  
 김지웅(2008). 대학생들의 멘토링 기능이 대학생 활적응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11(2), 77~101.

박경민(2008). 저소득가정아동대상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미(2006). 대학생을 위한 멘토링 기능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8(1), 49~57.  
 박종운·박성미(2007).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팀-멘토링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19(1), 150~160.  
 박진희(200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경주(2009).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의 실태현황, 기대효과 및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민화·이애진·손정원·정혜림(2011).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멘토·멘티·교사의 요구와 지원방안 분석, 특수교육 10(2), 83~114.  
 양민화·서유진(2009). 중학교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효과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4(2), 285~311.  
 오수정(2011).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2008). 멘토링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멘토링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세종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훈(2010). Cooper 등의 교육정책분석 이론 및 모형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4(4), 147~164.  
 Amado, N.(2009). A connection between mentoring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of practice, proceedings of PME conference, Vol,34 No.2.  
 Shin, Y; Rew,L.(2010). Nursing student participation in mentoring programs to promote adolescent health; Practical issues and future suggestions, Nurse education today, Vol, 30 No.1.

- 
- 논문접수일 : 2012년 05월 1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05월 28일  
2차 - 2012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07일